

프로가 되는 게 꿈이었다.

계기는 어렸을 때 아빠가 보여준 프로게임 리그의 결승전이였다.

특별해 보일 것 하나 없는 5명의 선수가 마치 하나가 된 듯이 환상적인 플레이를 펼친다.

그리고 수만 명에 달하는 관객들은 뜨거운 환호를 보낸다.

결국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나는 그들이 세상 누구보다도 빛나 보였다.

“아빠! 나도 프로게이머가 될래!”

그때부터 나는 프로게이머를 꿈꾸기 시작했다.

—

“타워 쳐! 타워 쳐! 타워 치면 이겨!”

“나 여기 봐줄래?”

“넥서스! 넥서스!”

‘승리’라는 문구와 함께 스크림이 종료되었다. 상대는 1부 리그의 하위권 팀이었다.

“애들아 오늘 경기력 괜찮은데?. 내일도 오늘처럼만 하자.”

스크림이 끝나자마자 방으로 들어온 감독님이 말했다.

내일 있을 1부 리그 승격전을  
대비한 스크림의 결과는 꽤 압도  
적인 승리였다.

“우리 진짜 1부 리그 갈 수 있  
는 거야?”

“실감이 안 나는데요. 내일 승격  
하고 나면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가죠?”

압도적인 경기력에 취해 행복회  
로를 돌리는 팀원들을 향해 감독  
님이 쏘아붙였다.

“야 너희 설레발치지마. 아무리  
그래도 상대는 1부 리그 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감독님은 흐

못한 미소를 지었다.

피시방 리그부터 시작해서 2부 리그 우승팀까지 오게 된 우리에게 1부 리그 승격전이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그럼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다. 내일 있을 승격전 대비해서 푹 쉬고 내일 보자.”

그렇게 말하고 감독님은 연습실을 나갔다.

“우현이 형. 저희 밥 먹고 들어갈 건데 형도 같이 가실래요?”

나도 가방을 싸서 연습실을 나가려던 찰나 팀의 막내인 석현이가 나에게 물어왔다.

“아니. 나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내일 파이팅하자.”

그렇게 말하고서는 아쉬워하는 동생들을 뒤로하고 나도 급하게 연습실을 나섰다.

동생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오늘 이야말로 감독님에게 할 얘기가 있었다.

“감독님! 잠깐만요.”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감독님을 불러세웠다.

“감독님. 할 말이 있습니다.”

“우현아. 무슨 일이야?”

“테스트 당시 저보다 잘하는 선

수가 있었다면서요.”

내가 이 팀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특출난 실력으로 스카웃 받은 것이 아니다.

FPS, AOS 심지어 RPG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랭커를 찍어봤지만, 어느 한 곳에서도 정점을 찍지는 못했다.

여러 가지를 잘한다는 건 프로 씬에서 그렇게 쓸모 있는 게 아니었다.

프로가 되고 싶어 여러 팀의 입단 테스트를 봤지만, 그 당시의 나는 특별한 장점을 가진 선수도 아니었고 쉽게 퇴짜맞기 일쑤였다.

그렇게 수많은 팀의 입단 테스트를 거친 끝에 겨우 붙은 곳이 2부 리그였던 지금의 팀이다.

“그때 선수가 지금 1부 리그 팀에서 활약하는 선수라고 들었는데... 왜 저를 뽑으신 거죠?”

얼마 전이었다.

팀의 매니저 형과 대화하던 중 입단 테스트 당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너 그거 알아? 원래 내부 평가에서 너는 2등이었어.”

“네? ”

“근데 감독님이 너로 뽑자고 강

력하게 주장해서 네가 뽑힌 거야.”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다.

실제로 나는 입단 테스트에서 굵직한 실수를 몇 번 했음에도 뽑혔다는 사실에 감격했었다.

“그때 1등 했던 친구는 지금 1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걸로 아는데... 결국 서로에게 잘된 거 아니겠어?”

그 외에도 감독님은 나에게 대해서 프런트와 상충한 의견을 많이 냈다고 한다.

결국 팀에 잘 녹아든 나는 지금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입단 테스트 당시의 나는 딱히 특출난 강점을 가진 선수도 아니었고 나이도 20살로 프로 게이머치고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던 탓에 감독님이 무엇을 보고 나를 뽑았던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감독님은 내 질문에 깊게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역으로 나에게 물었다.

“우현아. 너는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음... 피지컬이라던가? 상황 판단력? 아니면 반응속도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재능이 넘치는 선수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도 다 피지컬이나 뇌지컬이 받쳐줘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결국 중요한 것은 게임을 얼마나 잘 볼 수 있는지야. 너는 특별한 눈을 가졌어.”

“글쎄요... 저는 딱히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너도 곧 알게 될 거다.”

“네?”

“됐고 너 집이 어디야? 태워다줄  
게.”

—

“우현아. 너 판타지 좋아하냐?”

“판타지요? 뭐 요정이나 드래곤  
같은 그런 거 말하는 건가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으나 어릴 때  
부터 게임이나 판타지 소설을 즐  
겨 읽은 탓에 판타지에 대해서라  
면 꽤 알고 있었다.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신비로운 것이라면 판타  
지라고 볼 수 있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일 있을 승격전에 관련된 얘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판타지라니.

“그래서요?”

“보통 판타지라면 아름다운 세계를 떠올리잖나. 그렇다면 비극적인 세계는 어때.”

“다크 판타지라던가. 사이버펑크 같은 거요?”

“그렇지. 꼭 판타지라는 게 신비롭고 동경할만한 곳은 아니잖아.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우리의 현실이 더욱 판타지 같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가. 이세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었으나 딱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딱히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마법이나 색다른 종족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 현실은 충분히 아름다워.”

“글쎄요.”

나는 딱히 현실이 아름답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존재하고 나는 그런 재능러들을 뒤쫓아가기 바쁘다.

또한 미디어 속에서 비치는 특별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스스로가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런 현실이 뭐가 아름답다는 것인가. 이세계가 적어도 현실보다는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너는 이세계로 갈 수 있다면 어떡할래?”

“그거야 뭐……”

나는 한 치의 고민도 없이 답했다.

“이세계로 가겠죠.”

“그렇냐……”

“그치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인걸

요. 제가 살아가는 삶에 충실할 뿐  
이죠.”

그 순간 이상한 굉음과 함께 차  
가 뒤틀렸다.

“감독님! 무슨 일이에요?!”

급격하게 차가 뒤틀린 탓에 나  
는 순간 정신을 잃을 뻔했으나 간  
실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러  
나 해안가를 달리고 있었던 탓에  
차는 물에 빠지기 직전이였다.

옆자리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감독님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씨발!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일

이라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차는 결국 차가운 물 속으로 깊게 빠져들어 갔다.

‘제발!’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차 문은커녕 안전벨트도 풀리지 않았다.

어느새 차가운 물의 온도로 몸은 식어가고 내 폐는 가지고 있던 모든 숨을 내놓았다.

이렇게 죽는 건가. 점점 의식은 흐려지고 앞은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대신에 주마등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아빠... 나 드디어 꿈을



이뤘는데 미안...”

역시 죽을 위기에 처하니 부모님 생각이 먼저 들었다.

“또 우리 팀원들... 내일이 드디어 승격전인데... 미안해. 그리고”

감독님.

나에게 잘 대해주었던 옛날부터 조금 전까지의 잡담까지. 모든 순간이 마치 환상처럼 느껴졌다.

이해가 되지 않아. 대체 뭐지? 당신은 대체 누구야.

그 순간 감독님의 목소리? 그보다는 조금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시간이 없어. 마지막 기회야.’ ‘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 목소리마저도 잘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점점 나는 의식을 잃어갔다.

‘그가 잘 해낼 거라고 믿을 수밖에……’

—

“죽지 않은 건가?”

꽤 오랫동안 누워있었던 건지 몸이 꽤 찌뿌둥해졌다.

간신히 몸을 일으키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까까지 내가 있었

던 서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광경이 눈에 띄었다.

“여기는 어디지?”

미세먼지가 가득한 서울과는 다르게 푸른 하늘 아래 꽤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한 번도 못 와본 곳 같은데...”

그리고 가끔씩 들성들성 나 있는 나무를 제외하고 이곳에는 특별한 지형지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일단 주위를 둘러볼까.”

죽을 뻔한 후 생전 모르는 장소에 온 것 치고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진정되어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나는 일단 발밑에 보이는 흙길을 따라 걸어보기로 했다.

마치 서유럽의 시골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곳은 확실히 내가 아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계속 길을 따라 걷던 와중 저 멀리서 어떤 초록 물체가 보였다. 그리고 그 초록 물체는 나를 발견했는지 빠른 속도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체는...

“슬라임?”

...게임 속에서도 보던 슬라임이었다.

—

“살려주세요!!”

나는 안간힘을 다해서 슬라임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다행히도 나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지는 않는 탓에 간신히 도망치고는 있지만 점점 힘이 빠지는 탓에 위험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확실한 것은 지금 내가 슬라임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이세계로 오게 된 건가?’

죽기 전 감독님과 마지막으로  
했던 대회가 떠올랐다.

어쨌든 지금은 살기 위해서 계  
속 땀 수밖에 없었다.

“여기가 정말 판타지 세계라면  
특수한 능력이라도 있을 거 아니  
야.”

판타지 소설에서 봤던 스탯창이  
나 인벤토리 등을 열 수 있는지  
확인해봤다.

‘열려라 스탯창아.’

그러자 눈앞에 반투명한 스탯창  
이 보였다.

이름: 최우현

직업: ???

특성: ???

패시브: 성장 가속

“웬만한건 보이지도 않잖아!”

아직 이세계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까. 스탯창에서 대부  
분의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유일하게 보이는 건 패시브뿐인  
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장 가속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이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는 않았다.

점점 다리에는 힘이 빠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인벤토리에 변변찮은 무기 하나라도 없다면 정말 죽을 목숨일지도 모른다.

‘인벤토리!’

이번에도 속으로 인벤토리를 외쳤더니 눈앞에 반투명한 인벤토리가 보였다.

“어디 보자……”

그러나 인벤토리 속에는 특별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일말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나는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끼야야악”

나를 맹렬히 쫓아오던 슬라임이 불에 타고 있었다.

깜짝 놀란 주저앉은 내 뒤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뒤를 돌아보자 마법사를 연상시키는 복장을 한 채 얼빠진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소녀가 서 있었다.

그제야 나는 내 상황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나는 판타지 세계 속으로 들어

오게 된 것이다.